

데스크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

2003년 봄이었다. 취재차 홍콩에 들어서니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마스크에 반쯤 가려진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국내에서 '괴질'(怪疾)로 불리던 이것은 현지에서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라는 영문 약칭으로 통칭되고 있었다.

나름 출발 전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 마스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홍콩에서 만난 가이드의 말이었다. 급히 그가 권유하는 'N94 마스크'를 구입하려 했으나 품절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수술용 마스크를 사야 했다. 여러 기관들을 둘러 취재를 할 때마다 기자와 취재원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말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보통간의 출장 기간 동안 유일하게 믿을 것은 마스크 한 장 뿐이었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

우리 안의 '포비아'(Phobia)를 넘어서

르면 1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만 2638명, 사망자는 1016명이다.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국내 확진자는 28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완쾌돼 퇴원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으로 치유된 사례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중국과 한국 상황은 대조적이다. 이를 보면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도 신종 코로나는 원활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치료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낙관적 생각을 갖게 한다.

신종 코로나에 경제 한파

그렇지만 대중들의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이 부품 부족으로 멈춰 섰다. 식당이나 극장 인파도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공간에서 행여 전염되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신종코로나 뉴스를 접하면서 새삼 2003년 중국 출장길을 떠올렸다. 당시 사스가 위세를 떨치던 때에 기자는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홍콩, 심천, 상하이 등지를 돌아다녔다. 귀국해 보니 중국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병원을 가고 오는 것으로 여기는 듯싶기도 했

다. 결국 보건소의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대중들의 날선 불안감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라졌다.

사스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대중들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양이다.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동서(東西) 할 것 없이 '포비아'(Phobia·공포증)와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다. 단적인 사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제안이다. 지난 1월 23일에 '출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 네티즌의 청원에 11일 현재 69만6300명이 동의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문구가 나붙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뉴욕 인근 지역의 한 식당이 신종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관광객 입장을 거부했다는 보도다. 그들에겐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같은 아시아인일 뿐인 것이다. 국내의 중국인에 대한 공포증과 차별 대우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단적인 공포의 전염이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면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신종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기본적인 대비도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의 '포비아'를 떨쳐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포 대신 의연한 대처를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역작 '총, 군, 쇠'에서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인데, 각각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고 말한다. 인류는 이 같은 새로운 질병을 겪으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처하는 체계적이고, 탄탄한 국가적 의료·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포비아와 대조적으로 펼쳐지는 '우한 힘내라!'(武漢加油) 캠페인은 돋보인다. '우리 모두 아산·진천이다'('We are Asan!' 'We are Jincheon!')로 대표되는 지역 주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훈훈하다. "인간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꼭 병마와 싸워 이기세요. 당신들은 혼자 아닙니다. 한국에서 응원합니다." 우한 시민과 교민을 향한 이들의 메시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을 뚫는 녹이듯 녹이고 있다.

은펜칼럼

요맘때 이 맛



녹영석 농협 광주공판장장

20여 년 만에 고향에 내려오니 가고 싶은 곳, 먹고 싶던 것들이 노트 한 장에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추억도 입맛도 계절을 따라가는지 눈 덮인 서석대에 올라 심호흡을 하고 내리막길에 들르곤 하던 보릿국 집이 며칠 내내 어른거렸다. 마침 아래층 식당에서 흥어에 보릿국을 끓인다는 얘기에, 얼른 일어서서 같이 갈 사람을 찾는데 반응이 영 신통찮다. "그래 점심이라 옷에 냄새가 배면 곤란하겠지. 아니면 선약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식당으로 나선다.

구수하기도 꾀꼬리기도한 흥어애국은 요맘때가 가장 깊고 그윽한 맛을 내는 음식이다. 밥을 찰 많지도 답아 주시는 아주머니, 보릿국은 우동 그릇에 가득 퍼주

신다. 갯벌 바닥에 미끄러지듯 한 수저 가득 국물을 떠 넣으니 알싸한 전율이 입 안에서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 한참을 먹다 둘러보니 한 신규 직원은 먹는 동 마는 동 젓가락만 깨작거린다. 물어보니 생전 처음 먹어 보는 음식이란 다. 나 역시 흥어를 먹을 수 있기까지 20여 년 넘게 걸렸다.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던 게 흥어와 죽상이었지만 주로 어른들 차치였고, 냄새가 거북해 어린 나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흥어에 반색하는 동료들을 보면 못 먹는 사람이 손해하는 말에 한두 점 씹어 보았지만 맛도 물경한 식감도 별로인데다, 씹다 보면 남는 껍질을 내뱉기도 삼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상가라도 두어 시간 다녀오는 날이면 사나흘 지나도 빠지지 않는 콧물하고 코피와 냄새는 가족들이며 주변 동료들이 반겨 줄리 만무다.

어쨌든 어디가나 빠지지 않는 가장 남도스러운 음식을 남처럼 즐길 수 없다는 것은 음식 맛을 모른다거나 웬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자격지심을 갖게 했다. 누가 강권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특조는 맛

이 일품이라는 붉은 코를 먹어 보고, 오독오독 씹는 맛이 별미라는 날개를 볼 때마다 먹어 봐도 왜들 그리 흥어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 코, 2 날개, 3 꼬리' 순서대로 맛있다거나, 삼합이 나오면 어디가나 비슷한 맛 목은지에 수육을 싸먹는 것으로 흥어 맛을 아는 체했다. 타향 사람이 잘 먹는 데 흥어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 할 것 같고, 음식 맛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흥어를 마주할 때마다 먹어 보고 찜뽀리고 후회하기를 십 수년. 세월이 지나 주름살과 흰머리가 늘면 입맛도 곱사 지는지 그 찜는 냄새 뒤에 은, 코, 입천장과 귀구멍까지 뿜어져 나오는 알싸하고 얼큰한 맛을 어느 순간부터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두툼한 흥어 한 점 골라 씹으면 서 입을 살짝 벌리고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다음, 흥어와 타주를 뒤섞으면서 코로 숨을 내쉬면 그 짜릿한 맛은 다른 무엇과 비할 데 없다.

그러나 흥어 맛은 어느 게 최고랄 게 없다. 목은지와 흥어살 위에 삶은 돼지고기를 얹은 삼합이 널리 알려진 진미지

만, 흑산도와 목포 인근에서는 생물 그대로 썰어 찰진 맛을 즐기고, 영산포와 광주 등지에서는 삭혀서 특조는 것을 흥어의 참맛으로 친다.

흑산 흥어가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신안 인근에서만 흥어가 잡히는 줄 알지만 대정도에서 잡히는 물량이 더 많다고 한다. 겨울과 봄에 흑산도 인근에서 산란을 위해 서식하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북쪽으로 이동해 서해 5도 인근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맛은 역시 산란 전에 잡힌 흑산 흥어가 으뜸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흥어는 동지가 지나야 잡히고, 입춘 전후에 살 찌고 제 맛이 나며, 2-4월이 되면 맛이 떨어진다고 전하고 있다. 냉장 냉동 기술이 발달해 지구 반대편의 칠레와 알래스카 산 흥어가 들어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겨울에 잡히는 지금의 흥어가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침진 무등산을 같이 오르던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겨울이 가기 전에 서석대에 올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흥어옛국에 막걸리 두어 잔으로 회포나 풀자니 다 행히 가는 겨울이 아쉽지만 않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확진자 치료, 그리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과학연구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바이러스 및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유효 약물이 임상 치료에 투입되도록 빠르게 심사·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포괄적인 전국 조달 제도를 구축하여 의료진과 의료 물자, 생필품을 제때 조달하고 있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세계 각국의 합리적인 관심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각 분야의 업무가 적극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전염병의 외부 확산이 현저하게 둔화됐고, 완치 퇴원자 수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며 의심환자의 증가 폭 또한 낮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한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다. 역사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중한 양국 국민들은 '상유이말'(相濡以沫·물이 마르자 물고기가 직접 지워하고 직접 안배하며 수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 리커창 국무총리는 중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응 부서의 팀장을 맡아 친히 우한을 찾아서 방역 업무를 지도했다.

결된다"며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미 중국 측에 500만 달러의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각계는 물론 중국에 우호적이며 중국 여러 지역과 우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도움을 줬다. 광주시는 우한시 등 8개 자매 우호 도시에 10만 개의 마스크를, 전남도는 저장성·강서성 등 10개의 우호 교류 지역에 10만 개의 마스크를, 전북도는 장수성에 10만 개의 마스크를, 상해와 청도에 각각 4000개의 마스크를 기부했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 한중 우호기업가 포럼 등 민간 조직과 광주은행, 호남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기업과 대학에서도 대량의 방호 물품을 기부했다. 광주 현지의 유명 서예가들은 '우한 파이팅'(武漢加油) '천재에 백복이 온다'(去天災 來百福)는 서예 작품들을 통해 중국 인민의 전염병 투쟁을 응원해 주었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영사 구역 내의 중국 국민들, 특히 우한 등 후베이성

에서 온 동포들의 현지 관광과 체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영사구역 내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즉시 한국 측에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사 구역 내에서는 중국 국민의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영사 구역의 지방 정부와 각계의 관심 사안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들과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을 통해 중한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잘 보호하여 중국 국민도 안심하고, 한국 국민도 마음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도 감염 확산 방지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시기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인 장점들을 발휘하고 전면적인 동원, 업무 배치, 방제 조치 강화 등 방제 업무를 다방면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중국 인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리라 확신한다.

社說

코로나로 전남에 의대 설립 더욱 절실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전남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순식간에 전염되는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고 섬 지역이 많은데도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현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감염내과 전문 의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한 명씩 단 두 명뿐이다. 국가 지정 감염병 임원 치료 병원인 국립목포병원조차 치료 병상만 열 개 있을 뿐 감염병 전문의는 없어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남 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전문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 부족은 물론 시설·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종 코로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것은 감염병 관리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하는 전국 '의료

취약 지역' 9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곳이 전남에 몰려 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도 전국 평균 28.9명에 훨씬 못 미치는 24.7명에 그치고 있다. 의료 환경 전반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 및 전남도의회는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의대 유치는 국민의 30년 숙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목포시를 중심으로 지난 1990년부터 수십 차례 권역의 서명 운동 등이 펼쳐졌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다행히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보건의사회 연구원에 의뢰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 설치의 필요성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전남 지역 의대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놀라운 제1야당 대표의 '천박한 역사인식'

어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카메라는 분석집에 틀러 음식을 먹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추고 있었다. 황대표는 뽕가 기억이 잘 안 나니 저 때뎀 때뎀 말을 잇는다.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있었던 기억이..."

지난 9일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한 뒤 근처 분석집에 들렀던 황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황 대표의 발언은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5·18 피해자 및 유가족, 광주 시민들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는 반역사적·반인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무슨 사태'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지칭한 것이며 이는 당시 신군부가 명명한 '광주사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황 대표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뻣속까지 공간감작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황 대표의 역사 인식이 신군부가 규정한 '광주 사태'에 머물러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5월의 광주를 무슨 사태 당으로 기억하는 황 대표의 빈약하고 허망한 역사 인식 수준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했다.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발언이 5·18 민주화 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효교령의 배경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잘 생각나지 않아 '하여튼 무슨 사태' 운운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천박한 역사인식'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이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다. 한심한 일이다.

無等鼓

북강(脚槍)은 북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이곳에 장기 대부분이 들어 있다. 북부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통해 치료하는 '북강경 수술'은 외과수술 분야에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북부의 특정 부위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에 비해 입원 기간이 짧아 일상으로 서둘러 복귀할 수 있고, 감염에 따른 부작용도 덜했기 때문이다. 수술 후 흉터도 작아 미용 차원의 만족도도 컸다.

이 수술법은 1960년대 유럽에서 비요기과나부인과 분야에서 주로 사용됐었다. 그러

무한정 수사

1978년 독일 외과의사 키트 젤이 자가공기주입기를 개발하고, 1987년 프랑스 군의관 필립 모델이 작은 카메라와 TV모니터를 연결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담당 제거에 성공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엔 의료 기술과 장비의 발전으로 위간 등 주요 장기에 대한 수술도 가능해졌다. 검찰 수사를 흔히들 외과 수술에 비유하곤 한다. 한때 지난 2005년 두산 총수 일가에 대한 108일간의 검찰 수사는 '소결음식 수사' '백조식 수사' '외과수술식 수사'라는 각종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바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검찰은 "정밀 외과 수술식 수사를 지향, 기업 수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명칭을 반부패부로 변경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별건 혐의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나 무차별적 소환을 통해 관련자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15년간 일관되게 과거 수사 방식에 대해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그 변

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지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9개월간의 수사, 그리고 지난해 9월 광주시청 및 광주도시공사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이어지고 있는 수사는 누가 봐도 과거 검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 다. 대상이나 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검찰은 사실상의 '무한정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강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속하고 부작용 없는 외과수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담당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